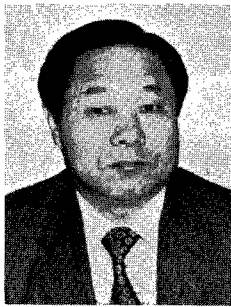


# 젊은 양계인 부부의 행복



김 순 재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교수

**축** 산을 농업의 한 부분이라고 여겨오던 시대는 흘러가고 있다. 우리의 식생활에서 식탁 위에 고기가 올라와야 희색이 만면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든다. 그래서 우리의 축산업을 뒤돌아 보면 1950년 말에서부터 198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고통을 겪어서 오늘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축산정책의 빈곤에서부터 축산인의 미숙한 판단으로 오히려 뒤치락하는 곤두박질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오늘의 축산으로까지 이끌어 오는데 고통을 참고 인내의 힘에 의지하여 왔다고 본다. 축산업 중에서 양계업은 어느 축산업 보다 일찍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 양돈이나 낙농 보다 먼저 어려운 고충을 겪고 이겨 왔는데도 축산정책에서 양계산업은 소외당하는 외로움도 맛보았으며 그러한 소외의 이유로는 양계산업은 가만히 놔두어도 채발로 걸어갈 수 있다고 판단한 축산 입안자들의 변이다. 축산정책의 빈곤으로 오히려 만족할만한 지원이나 혜택을 받지 못할 바에야 스스로 걸어가는 것이 고통을 더 받는 한이 있어도 발전하는데 촉진제가 될 수 있었을 것으로 자위하여 본다.

양계산업이 계속되는 불황 속에서 해매고 있다고 해서 스스로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기에 여기에 희망과 앞날의 행복을 붙여 넣어 줄 수 있는 몇가지 조건을 특히 젊은 양계인 부부에게 권장하

고자 한다.

첫째, 부부사이에는 예의가 있어야 한다. 흔히 부부 사이에 무슨 예의가 필요하냐고 하는 사람이 있으나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부부란 남녀 이성이 결합해서 부부가 되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엄격한 부부사이의 예의가 있어야 한다. 또 어떤 사람은 부부란 일심동체인데 예의가 필요없다지만 일심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예의가 지켜지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예의를 지키면서 살아감으로써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부부사이에는 예의가 흐트러지면 그 부부사이에는 가정의 질서가 문란해지고 생활리듬이 흐트러지면서 싸움이 자자하여 화평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을 것이다. 부부사이에는 가장 허물이 없고 간격이 없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고 예의없이 발설되는 말이 오고 갈 때 인간은 감정의 동물인이라 기분을 상하게 하여 분위기를 캄캄하게 흐릴 필요는 없는 것이다. 자칫하면 흐트러지기 쉬운 것이 부부사이임을 다시 인식하고 부부생활에 임해야 할 것이며 가까울수록 항상 예의를 지키는 것이 사람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둘째, 사람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부생활을 이어가야 한다. 사랑과 행복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는 뜻이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줄 알아야 한다. 마치 아내를 자기의 소유개념으로 생각해서도 안된다. 아내는 남편의 한 부분이 아니라 몸의 전체요, 삶의 전체라고 생각하고 서로 존경하면서 생활을 이어나간다고 하면 두개의 힘이 하나가 되어 어떠한 어려운 일이라도 무난히 헤쳐 나갈 수 있으므로 그 부부의 행복은 저절로 찾아올 것으로 믿는다.

셋째, 부부사이에는 서로 이해함이 반드시 필요하다. 부부란 이성의 결합이므로 여기에는 의견의 대립이 따를 수 있다. 또한 사람은 신이 아닌 이상 실수도 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서 심할 경우에는 파산으로 몰고 가는 수도 있을 수 있다. 부부생활 또는 가정을 이끌고 나가다 보면 어떠한 실수나 잘못이 발생하였을 경우 남이 알아서 해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러한 실수를 대문 밖으로 내보내 이웃이 알고 남이 알았을 때 절대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속담에 이러한 말이 있다. '눈이 있어도 흙을 보지 말고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말라'하는 말은 바

로 그러한 실수나 잘못은 부부가 상호의 이해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널리 확산시켜서 오히려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자초하지 말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할까. 부부의 넓은 이해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잘못을 잘못으로만 몰아부친다면 절대로 지혜로운 처사가 아니다. 그러한 경우 넓은 아량으로 받아들이고 깊은 이해를 한다면 그 문제는 무난히 해결되어 나갈 수 있으며 더욱 부부의 힘은 강하게 결합이 될 것이다.

네째, 사람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사랑 중에는 여러가지 사랑이 있으나 여기에서 권장하고자 하는 사랑은 이성간에 느끼는 첫사랑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러한 첫사랑 중에는 연애시절에 느꼈던 사랑, 약혼시절에 느꼈던 사랑 또는 결혼 초기에 달콤하고도 로맨틱한 그 첫사랑을 가끔씩 회상하면서 생활을 해나간다면 오늘과 같은 불경기도 무난히 극복할 수 있으며 가정생활의 복잡함을 해결하면서 무난히 이겨나갈 것이다. 부부싸움은 말리는 사람이 없다. 부부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하므로 과거를 회상 또는 지난 추억을 더듬어가면 첫사랑이 떠오르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첫사랑이 화해시키는 중화제가 될 수 있으며 사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나갈 수가 있다.

다섯째, 효도를 해야 한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는 것은 인간의 도리요, 천리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나를 낳아서 길러주시고 가르쳐 주신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인생삶의 순리이다. 남편은 처가의 부모도 부모요 아내는 시댁의 부모도 부모인지라 처가와 시댁의 부모를 가릴 것 없이 즐겁게 하고 평안하게 모실 수 있다면 그 가정은 모든 일이 뜻대로 성취되고 가화만성이 될 것이다. 그러한 일이 자식된 도리이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으로서 자손대대로 물려받은 효도의 정신은 그 가정을 화목하게 영위하고 남에게 존경받는 부부가 될 수 있다. 그러한 행복한 가정을 바탕으로 오늘의 불경기를 넘긴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을 뜻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부부사랑에 의한 가정의 화평은 편안하게 설 수 있는 안식처요, 삶의 보금자리이므로 하는 일, 목적하는 일, 추구하는 일들이 모두 성취될 것으로 확신한다. **안기**